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자 중심으로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지백 비추이노바



# **Social integration of Koryuin im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Koryuin from Kazakhstan**

A thesis presented by

Zhibek Bichuinova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2017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자  
중심으로

지 도 교 수 박태균

이 논문을 한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지백 비추이노바

지백 비추이노바의 한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 월

위 원 장 \_\_\_\_\_ 은기수



부위원장 \_\_\_\_\_ 문현아



위 원 \_\_\_\_\_ 박태균



**Social integration of Koryuin  
im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Koryuin from Kazakhstan**

**Professor Tae-Gyun Park**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November 2016**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Zhibek Bichuinova**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Zhibek Bichuinova**

**Januar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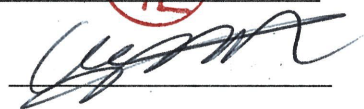
**Chair Eun, Ki-Soo**



**Vice Chair Moon, Hyuna**



**Examiner Park, Tae-Gyun**



## <국문초록>

#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자 중심으로

지백 비추이노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CIS국가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 형상의 확대를 고려하여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그들의 한국에서의 사회통합 과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이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통합은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통합인 체제통합과 상호이해수준, 정체성과 상호교류수준으로 파악되는 가치통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Kreckel, 1999). 본 논문은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 체제통합보다 가치통합에 집중하여 사회통합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정체성 변용,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이해하였다(Maeda, 2006).

문화적 정체성과 주류사회-이민자 관계 두 차원에서 고려할 때

문화변용을 동화, 통합, 분리와 소외 네 가지 결과로 분류될 수 있다 (Berry, 1986, 1997). 동화는 이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현지의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은 과정이다. 통합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원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동일하게 인식하며, 현지 체제의 실제 구성 요소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리는 이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단체나 사회 구성원들과 교제를 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외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제를 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Berry, 1997:7-11).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자들을 네 가지 정체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카자흐스탄 사람이어도 자신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통합'의 범주, 자기를 카자흐스탄 사람으로만 의식하는 '분리'의 범주, 한국사람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닌 '소외'의 범주와, 더 이상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한국사람으로만 의식하는 '동화'의 범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36%는 '동화'와 '통합' 범주로 분류된 반면, 64%는 '소외'와 '분리'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부분이 한국에 이주한 후에 여러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에 부딪쳐 주변화되며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지수(Social Integration Index)가 적용되었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인식 등의 요인과 대상자들의 사회통합수준의 교차분석 결과에 임금수준, 근무 조건, 지역 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반면, 사회적 관계, 사회적 인식 및 언어 능숙도는 가장 유의하였다. 비교적 높은 통합수준을 보여 주는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자신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다. 그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여 한국 사회와의 많은 교제를 가지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언어적 문제이다. 언어는 고려인들의 한국사회와 대화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배울 기본을 만든다.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편리한 통합을 위하여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언어 교육의 효과성을 위하여 고려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호감도와 민족동질성이 아직 낮은 편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이 긍정적 소수민족(positive minority)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신분이 낮아지며, 3-4 세대 고려인들이 같은 한민족이어도 통합을 못하고 있어 부정적 민족집단(negative minority)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한국에서의 체류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지지하는 민족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현지 주민과 고려인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요건을 만들어 상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상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여로 인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으며, 향후의 연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한국,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통합, 정체성

**학 번:** 2014-24378

#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이론적 배경.....	5
1-3 연구 방법.....	7
제 2 장: 주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고려인의 변화.....	9
2-1 고려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민족 정체성의 변화.....	9
2-2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의 배경.....	19
제 3 장: 주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 통합: 설문 조사 결과와 그 특징.....	31
3-1 조사대상자 소개.....	31
3-2 설문 조사 분석.....	43
3-2-1 사회 통합 지수 (Social Integration Index).....	43
3-2-2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
제 4 장: 인터뷰 결과를 통한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성 분석.....	51
4-1 사례를 통해 본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주 전/후의 인생 경험.....	51
4-2 인터뷰 분석 결과.....	62
제 5 장: 결론.....	70
참고 문헌.....	75
Appendix 1.....	82
Appendix 2.....	83
Appendix 3.....	84



## 표 목차

[표 2-1] 1996 및 2001년 설문조사 결과: 국외 이주에 대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의견 . . . . .	21
[표 2-2] 소수 민족별 카자흐스탄 인구 1979~2016 . . . . .	22
[표 2-3] 방문취업자격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고려인 국내거주자 현황	27
[표 2-4] 재외동포자격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고려인 국내거주자 현황	28
[표 3-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 . . .	32
[표 3-2] 이주 전/후 카자흐스탄에 대한 시선 . . . . .	34
[표 3-3] 이주 전/후 한국에 대한 시선 . . . . .	34
[표 3-4] 이주 후 대상자들의 자기의식 . . . . .	36
[표 3-5]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변용 결과의 교차 분석 . . . . .	36
[표 3-6]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 . . . . .	38
[표 3-7] 교제와 거주지 선호성 . . . . .	39
[표 3-8] 차별 경험과 사회 생활 참여 . . . . .	39
[표 3-9] 한국어 능숙도 . . . . .	40
[표 3-10] 카자흐어와 고려말 능숙도 . . . . .	41
[표 3-11] 카자흐스탄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 비교 . . . . .	42
[표 3-12] 카자흐스탄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 . . . .	42
[표 3-13] 탐색요인분석 결과 . . . . .	43
[표 3-14] Rotated Component Matrix 분석 . . . . .	44
[표 3-15]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지수 소계 . . . . .	45
[표 3-16] 사회통합수준과 통합 범주의 교차 분석 . . . . .	45
[표 3-17] 사회통합수준과 외부 요인의 교차 분석 결과 . . . . .	46
[표 3-18]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 . . . .	47
[표 3-19] 한국사람들과의 교제와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 . . . .	48
[표 3-20] 인식과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 . . . .	49

## 그림 목차

[그림 2-1] 카자흐스탄 GDP 연간 성장률(%) . . . . .	23
[그림 2-2]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인구이동 현황 . . . . .	24
[그림 2-3] 카자흐스탄 고려인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자격 국내 거주자 현황 . . . . .	26
[그림 3-1] 대상자들의 근무지 (%) . . . . .	33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현재의 세계화 상황에서 국제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국제 이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최근에 여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한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2007년에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자 중국 조선족 동포와 CIS국가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체류 자격 여건들이 완화되면서 본 지역에서의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에서 40,000 여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오는 고려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들은 한국의 이들의 출신국에 대한 해외정책 차원에서는 주요 인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인 경우,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다문화 경험을 가짐으로 한국과 본국 가운데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최영진, 2015).

하지만, 고려인 다수가 한국어를 모르며, 한국 사회에

적응과 정착을 하지 못 해서 자주 방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다(최영진, 2015). 이에 따라, 고려인 사회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될 수 있다. 국내 고려인들이 직면하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또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만 본 문제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앞으로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 중에 김재기(2014) 교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33명의 면담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이 귀환하게 된 배경과 거주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김경학(2014) 교수는 고려인 개인과 가족의 한국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이주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영술, 홍인화(2013)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 현상을 고려하면서 초기 국내 고려인 마을 공동체와 위치 선택, 생산, 수입 및 구직경쟁, 동화 투쟁, 가족 문제 및 송금효과, 선택, 태도 및 공공 정책 분석을 통해 고려인 정체성의 결정요인과 문화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고광신(2011) 교수는 국내거주 고려인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한국어 말하기 수준, 임금 수준, 성별, 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은 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한 고려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다수는 CIS국가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소련 국가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정책과 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고려인들의 한국에 귀환하는 동기와 기대가 출신국가 별 다를 수 있다.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국가별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 25여년 이상 서로 다른 특수한 체제 내에서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천연자원으로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주변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적 성장과 국민소득수준을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소수민족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결과에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의식과 정체성, 한국에 대한 태도 등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 고려인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오정은, 2015:125). 따라서, 이러한 상당한 차이 때문에 국내거주 고려인들 가운데에서도 국가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현재까지 다른 주변의 국가 고려인들에 비해 경제적과 사회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귀환하는 이들의 수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고려인에 비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원유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악화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스탄인과 고려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세력 전환의 우려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체류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다문화적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들은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 해서 다수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의문적이다.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밝히는 것이며,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이 아래와 같다:

1.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 통합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2.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3.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이민한 전/후에 그들의 인생경험은 무엇인가? 그들은 한국에 와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면서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포기하며 한국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인가?

## 1-2 이론적 배경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와 해석이 달라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통합은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Kreckel, 1999). 체제통합은 정치 및 경제적인 체제의 통합이며, 가치통합은 상호이해수준, 정체성과 상호교류수준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Kreckel(1999)은 하위체제의 통합과 가치 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사회통합은 한편으로는 체제에 얼마만큼 통합되었는가의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회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통합이기도 한 것이다.

문화적 통합은 주로 문화변용(acculturation)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Berry(1986, 1997)는 문화변용의 결과를 동화, 통합, 분리와 소외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Berry에 따르면, 동화는 이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현지의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은 과정이다. 통합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원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동일하게 인식하며, 현지 체제의 실제 구성 요소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리는 이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단체나 사회 구성원들과 교제를 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외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제를 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Berry, 1997:7-11).

Maeda(2006)는 상기 이론을 토대로 하여 사회 통합이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관계 두 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의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정도에 따라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의 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평등권과 사회 단체 지원 두 가지 외부요인들은 사회통합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06:198-199).



본 연구에서 Berry와 Maeda의 틀을 토대로 하여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문화변용, 정체성과 사회통합 과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설문조사와 양적인 면담 연구 방법을 포함한 다방법론을 이용한다. 두 방법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단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상의 실제 그림을 보여 줄 수 있다.

양적인 방법은 대인수에 접근함으로써 거시적 수준의 사회생활에 집중한 반면, 질적 방법은 작은 표본 크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미시적 수준의 사회생활에 집중한다. 그럼으로 이 두 연구 방법은 현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룰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 검토, 뉴스, 신문 기사, 설문조사, 면담 결과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연구과정동안 서울, 안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총 50명을 설문하였다. 설문은 2016년 09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0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응답자를

편의표출과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구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설문과 인터뷰를 러시아어로 진행하였다. 설문 항목은 일반 정보를 위한 단답형 문항, 항목 4개 라이커트식 척도, 일화적 목적을 위한 단답형 문항, 의미척도 문항 및 선다형 문항을 포함한다. 설문 조사는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 통합,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중심으로 한다.

첫번째와 두번째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통합 이론을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 각 대상자의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며, 그에 따른 사회통합수준과 여러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세번째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3명을 심층 인터뷰와 1명을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30-45분가량 되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이주 전/후에 그들의 인생 경험과 정체성 및 평소에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 제 2 장: 주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고려인의 변화

### 2-1 고려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민족 정체성의 변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를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흐름은 19세기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자발적인 이주였다. 두번째 이주는 1937년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한 고려인 대상으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제 이주였다. 세번째 흐름은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연방에서 독립하고 개방한 초기에는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을 직면한 고려인들은 연해주 또는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는 1860년대 한반도의 북쪽에서 한인들이 러시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시점부터 비롯한다. 당시, 한인들이 극빈과 허기 때문에 비옥한 미개척지를 가진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연해주에서 첫 한인 거주지는 1865년에 세워졌으며, 매년 극동 지역에 이주한 한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한인들은 연해주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부터 한일합방 이후는 일본 자본가와 지주들의 토지 공탈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으로 러시아로의 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17년 러시아에 거주한 한인의 수가 10만 명에 달하였다(정병진, 남 빅토르, 2011: 235).

1937년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연해주에 거주한 한인들의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대증 강제이주가 시작하였다. 강제이주의 공식적 이유는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다(전신욱, 2007: 216).

강제이주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역사학계 중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전재한다.

첫째,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일본은 소련 극동 지역을 침략하며,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므로 만주국을 세웠다. 소련은 일본의 침략적인 정책에 대해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 당국은 연해주 한인들이 일본인들의 소련을 향한 첩보 활동에 협조할 수 있는 것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곧바로 한인을 극동 접경지대에서 내륙으로 강제적인 이주를 결정하였다(이상근, 2010: 282). 한편, 한인 이주민 중에 항일 민족 해방 운동 참가자들이 많았다. 일본 통치세력의 잔혹한 정책 결과로 한인들은 러시아 영토로 이주하면서 자신의 활동지를

러시아에서 계속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전쟁에 맞설 준비가 안 된 소련은 대적인 독일, 일본과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반일감정이 강한 한인들을 연해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주장도 존재한다(정병진, 남 빅토르 2011: 239).

둘째, 연해주 한인들이 벼농사를 성공하였으므로 소련 당국은 불모지인 넓은 중앙아시아지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더 크게 활용할 목적으로 강제이주를 단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킴으로써 거기서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되어야 했다. 1931-1933년대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집단화가 일으킨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2백만 명 가까이 상상자가 생겼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지역의 커다란 인력 부족을 새로운 이주자로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소련 중앙 정부는 한인들이 한 것에 살지 않고 그들을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며 기타 소수 민족과 섞여 살게 하며 분산시켜서 지배하는 인구분산정책을 실현하였다(김계르만, 1995).

넷째, 1934년에 소련에서 유태인 자치주가 창설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련당국은 극동 지역에서 한인들의 수적 우세를 고려하여 한인 자치구 설립을 두려워했다(Kho, S, 1987). 소련

중앙 정부가 국경 안전을 위해 취한 예방적 조치로서 국경과 가까이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을 이주시킨다는 정책적 조치들은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행해지고 있었다. 당시 불안한 국제적 정세가 점차 소련의 고립을 심화시키자 소련 당국은 일국사회주의 건설의 대명제를 국경 강화, 내부단속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930-40년대 연해주 한인(약 18만 명)뿐만 아니라 폴란드인(약 14만 명), 독일인(약 75만 명), 이란인, 쿠르드인을 비롯하여, 60개 소수민족 3백만 명이 강제적 이주의 대상이었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연해주 지방에 거주한 한인 대략적으로 180,000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정병진, 남빅토르, 2011:10). 한인의 이주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인들을 승차시킨 열차는 주로 가축 운반차였기 때문에 과격 여건과 의료지원 부재로 인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 중에 환자 및 사망자의 수가 높았다(김게르만, 1995). 또한 한인 이주를 위해 준비된 이주 보상비나 경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방 및 중앙관리들에 의해서 지출이 지연되거나 전용되었다(이상근, 2010:302). 또한 스탈린 명령에 따르면 이주민이 남겨둔 동산, 부동산 및 작물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이주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인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이나 평안한 정착을 위한 예산 없이 아예 모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이주한 한인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정착했으며 콜호즈와 소브호즈(집단 농장)를 만들었다. 현지인들은 한인들을 까레이찌(‘К о р е й ц ы’)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요즘 한국과 해외 학계에서 고려인 또는 고려사람(‘К о р ё С а р а м’) 등 공식명칭이 많이 사용된다.

생경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일체감을 향상시켰다(Yem, Epstein, 2015:137). 반면, 고려인들은 다민족국가인 구 소련 내에서 소수 민족의 하나로서 콜호즈와 소브호즈에서 다른 소수 민족들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Kho, 1987:63). 즉, 한편으로는 고려인들이 자신의 전통 및 문화를 상대적으로 유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환경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생활 방식들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인들의 사회적 조직은 주로 다문화적 노동 단체의 형태로써 고려인들의 물질적 문화가 평준화되며 건축, 가구 및

가정용품들이 주로 소련 사회 내에서 이용한 것들과 통합되었다.

전통과 문화적 요소들은 주로 농촌 지역의 온돌 시설, 여성 명절 복, 음식 및 가족 관계 형태로 유지되었다.

고려인들의 모국어 문화는 국가의 사회정치적인 지형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었다. 1930년대까지 극동에 재소 고려인들의 문화적 발전을 뒷받침할 기초가 마련되었다. 즉, 강제이주 전에 재소 고려인들이 교육을 모국어로 받을 권리가 있었다. 연해주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사범대학교, 전문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들의 한국어학과들이 있었다. 문학, 번역과 기자 분야의 고려인 지식인 중 학계도 형성되고 있었다. 극동에서 한국어로 발행된 잡지 6개와 신문 7개가 있었다. 그 외에, 고려인 극예술도 형성되며 개발하고 있었다. 즉, 극동 재소 고려인들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있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한 후, 모국어 사용 상황이 급속히 달라졌다. 당시 소련당국은 다민족 소련화 동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민족 정책을 내세워 모든 민족을 용화하고 범민족적인 단일한 소련인을 창출해 내자고 하였다(임채완, 1999:328). 그 결과, 1938년 러시아어 교육을 의무화고 민족학교 개편에 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민족 공화국 내의 모든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소수 민족 기관들이 폐지되었다. 그 중에 폐지된 118개의 고려인 학교는 러시아인학교와 통합되거나 교육 언어가 러시아어로 변경되었고 까실린스크 조선 사범학교와 크즐오르다 사범대학교도 폐지되었다.(김올가,2001:21; 임채완,1999:.321) 이러한 조치들은 고려인들의 한국어와 민족 문화의 특수성 유지와 계승을 회복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1950년 후반대 소련 내에 고려인들의 급속한 도시화는 고려인들의 언어와 민족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것은 바로 1956년 7월 ‘특별이주민들의 거주제한조치 해제법’ 이 발표됨으로써 카자흐 민족 공화국의 고려인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었다. 고려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얻고 집단거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농촌입구비율이 80% 자치한 반면 1989년에는 84.2%가 도시거주지로 나타났다(김올가, 2001:22). 이동 제한이 해제되자 젊은 고려인들은 전국에서 모든 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1946년에서 1959년 사이에 한국어를 능통하는 사용자의 수가 10%로 줄어들고, 그 이후는 10년간 계속 줄어들어진 결과에 1970년에 카자흐 민족공화국에서 거주한 고려인들의 83.3%가 자기를 러시아어 능통자로 주장하였다. 그럼으로, 소련 정부의

러시아어 중심 정책으로 인해 고려인들이 성공적인 사회적 진출을 위해 러시아어를 배워야 하였고 이동 제한이 해제된 이후 급속히 활발한 고려인들의 도시화는 재소 고려인들에게 모국어로 소통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3-5세대 고려인 대부분은 모국어를 모른다. 2009년 카자흐스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36%가 자기 모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64%는 다른 민족 언어를 골랐다.

많은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민족 정체성 특수성의 완전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새로운 민족 정책과 더불어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자각하고 민족 문화를 재생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재소 고려인들의 1937년 강제 이주에 대한 명예 회복, 민족 문화의 재생과 발전 등이었다.

그외에는 본 정책은 각 재소 소수 민족에게 자신의 사회적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주었다. 이 결과에 구 소련 국가에서 제일 먼저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나중에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악토베주, 크즐오르다주, 잠블주, 우랄스크주, 코크체타우주, 카라간다주 등 전국 여러 주와 도시에서 한국문화원들이 생겼다. 한국문화원들은 한국 민족 문화, 모국어, 전통 관습의 재생을 자신의 주요 목적으로 세웠다.

1990년 3월 17일에 알마티에서 카자흐민족공화국의 고려인들의 의회 개최 시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를 처음 창설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다른 구소련 국가의 고려인들보다 현저히 통합되어 있다. 즉, 구소련 국가 중에 고려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여러 개 서로 경쟁하는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유일한 공식 대표 조직으로써 전국의 전부 고려인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Kan, 2016/11/25).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사회적으로 통합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위치도 대폭 바뀌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은 전체 중앙 아시아 고려인들의 신분을 변경시켰다. 소련 당국은 고려인들한테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많은 고려인들이 전쟁 시에 전면에 곡물과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특별 명예 노동자 메달을 수여 받았다. 그들이 나라에 기여할 자격이 있는 것은 고려인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면서 소련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가속화시켰다(Diener, 2006).

소련이 해체 이후는 전체 구소련 지역에 새로운 사회정치적 개혁이 시작한 결과에 사회적인 유동이 극히

중요해졌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실업과 생산 감소는 카자흐스탄에서 개인 사업 분야를 발달시켰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새로 단행한 시장 중심의 경제 개혁들이 사회적인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대개 재산가와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시켰다(Yem, 2012). 고려인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카자흐스탄 사회에 역동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는 많은 고려인들은 사업적으로 성공적이며 카자흐스탄 경제의 민간 부분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 튼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김케르만, 2009:151). 그 외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교의 선립과 더불어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한국 간 공동 사업에 유리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77년 동안 다문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면서 한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갖추는 새로운 특수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소수민족이어도 다수민족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sup>1</sup> '긍정적인 소수 민족'라고 할 수

---

<sup>1</sup> 요즘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과 캐나다 골로프킨 프로 복싱 선수들은 스포츠에서 성공을 하여 카자흐스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

있다.

## 2-2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의 배경

1992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연방에서 독립하고 개방된 것은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독립의 초년에는 카자흐스탄 국민과 소수 민족의 동일화와 국민 정체성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회적과 문화적 측면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련 정권의 기간 동안 상실된 문화적과 역사적인 요소의 회복과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른바 “카자흐화”라는 자민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본 자민족 정책은 해외 카자흐 디아스포라의 귀환, 정부기관에서 카자흐 사람들의 우위, 자민족주의 중심 역사의 재평가, 카자흐어와 문화의 보호와, 카자흐민족 인구의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분배시키는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소련정권 후기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지배적으로 유럽인 소수 민족들의 대중 국외 이주와 더불어 카자흐 인구의 높은 출생률과 중국 내 카자흐 디아스포라의 귀환으로 인해 카자흐 민족의 전체 인구비율이 1989년 40.1%에서 2009년 63,0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여건들이

---

요한 인제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소수민족 구성원으로서 카자흐스탄 발전에 기여해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심리적 압력을 가하며 해외 이주의 추진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Natsuko Oka, 2016/11/18).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책이 고려인들의 이주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바르지 않은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책은 공격적이지 않으며, 민족 간의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민족간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민족 정책을 실시한다. 1995년에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민의회가 창설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회 활동의 주요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며, 민족적 통합을 위한 실제적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소수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보증한다. 그럼으로 국민의회는 공화국 내에 소수 민족 간의 대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독립의 25년 동안 국내에서 민족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의회 성공적인 활동에 대한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국민의회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국민의회 구성민족 집단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다(Natsuko Oka, 2016/11/18). 카자흐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국내의 여러 경제적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Yem N.B., 2012; Kim

G.N., 2009; Absattarov R., Men D., 2012).

1996년과 2001년에 카자흐스탄 디아스포라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우쉬토베와 알마티에서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1,000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의 질문 중에 하나는 해외 이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조사 참여자들에게 고국을 영원히 떠날 기회가 생길 경우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1> 1996 및 2001년 설문조사 결과: 국외이주에 대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의견

카자흐스탄을 떠날 기회가 생기면 나는...	1996 (%)	2001 (%)
생각 없이 나라를 떠나버릴 것이다	16,7	17,99
고려해 볼 것이다	31,9	22,85
자녀의 소원을 고려해 볼 것이다	11,3	15,34
부모의 조언을 고려해 볼 것이다	8,4	20,61
아무 곳에도 가고 싶지 않다	30,7	23,21
대답을 못 한다	1,0	-

자료: Kan G. 2001, <표 5>.

<표 2-1>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2001년에는 거주지를 바꾸고 싶지 않은 고려인의 수가 감소했지만, 이주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1996년보다 9% 가까이 줄었다. 즉, 여러 외부 요인도 있지만, 5년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고려인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표 2-2> 카자흐스탄 인구 1979~2016 (소수 민족별)

민족	1979	1989	1999	2009	2016
카자흐	5289349	6534616	7985039	10096763	11748179
러시아	5991205	6227549	4479620	3793764	3644529
우즈벡	263295	332017	370663	456997	548841
우크라이나	897964	896240	547052	333031	289724
위구르	147943	185301	210365	224713	256295
타타르	312626	327982	248954	204229	202934
독일	900207	957518	353441	178409	181754
터키인	25820	49567	75900	97015	107944
<b>고려인</b>	<b>91984</b>	<b>103315</b>	<b>99665</b>	<b>100385</b>	<b>107169</b>
기타	773242	864077	582427	524291	583210
합계	14684283	16464464	14953126	16009597	17670579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인구 연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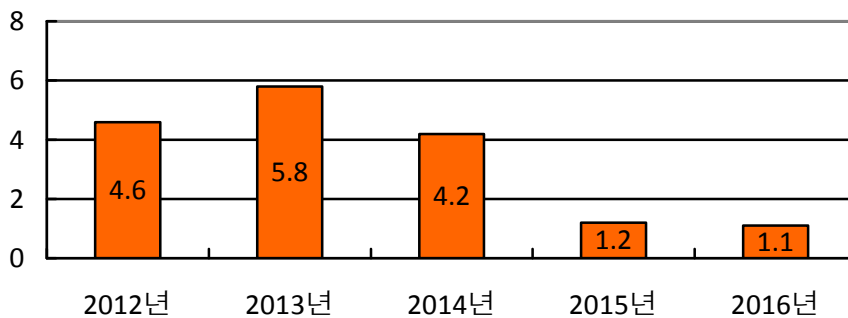
<표 2-2>에 따르면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민족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주변의 국가에서의 고려인들의 이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이슬람화, 전체주의와 자민족주의가 확대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비교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자유민주적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왔다(Diener, 2006).

그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요 이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와, 카자흐스탄의 2014년에 전체적 수출의 70%를 차지한 석유의 수출에 대한 의존으로 세계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외로의 이주자의 수가 작년인 2013년에 비해 25%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이었다(Simakova, 2016/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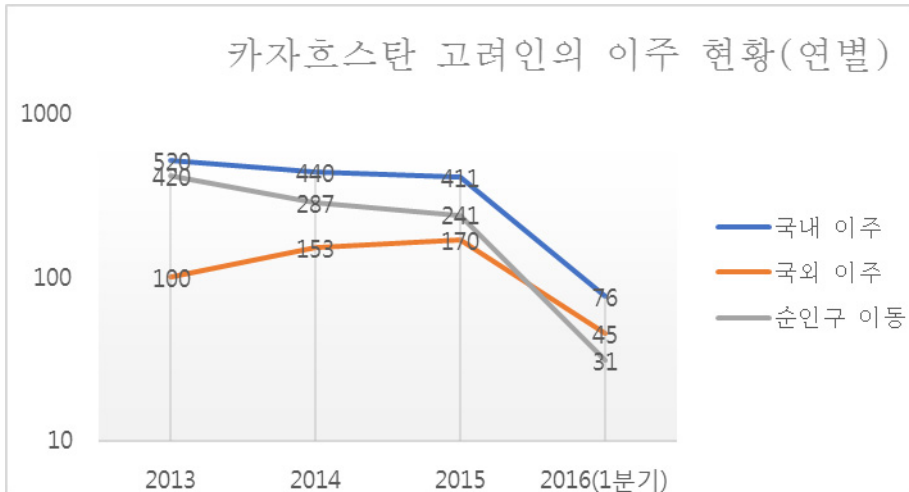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GDP 연간 성장률



<그림 2-1> 카자흐스탄 GDP 연간 성장률(%)

자료: 세계 은행 통계자료, 2016,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Kazakhstan GDP Growth Annual(%))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GDP 연간 성장률이 2015-2016년에 상당히 하락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1).



<그림 2-2>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인구이동 현황(연별)

자료: Olga Simakova, 2016, «What does the balance of migration in Kazakhstan tell about?»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2016년 기준 1인당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32,769(1\$당 331텐게 기준으로 \$410)텐게로 보도된다. 한국에서 단수노무직 업종에 종사하면서 월 1백만~2백만원 받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본국에서의 임금보다 훨씬 많다. 이렇듯, 현재의 카자흐스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한국에 이주하는 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그림 2-2)의 주요 추진 요인으로 보인다.

고려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증가의 흡인요인이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 요건 간소화로 보인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1992년에 처음 국교를 맺은 시점부터 한국정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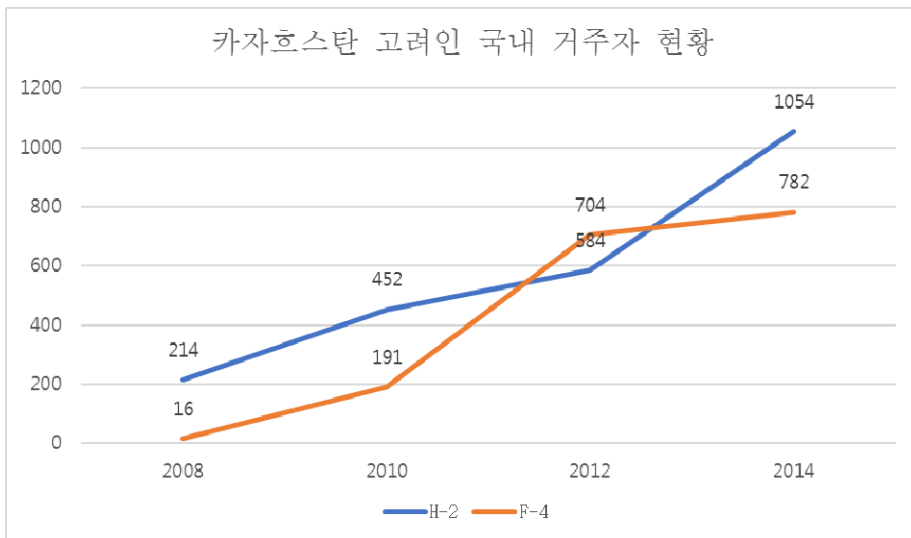
여러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1990년 전반부터 대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광신, 김형태, 2011:50) 하지만, 10년 후에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모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sup>2</sup> 1999년에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CIS국가 동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동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었다. 이것은 중국과 CIS지역 동포들은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외이주를 했기 때문에 동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들에게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대체 우려가 있어 동 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차별에 대한 주장이 확대되자 거주국 동포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취업관리제와 2007년에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 만 2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3-5년 동안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을 허용하였다. 새로 도입된 방문취업제는 본 지역

---

<sup>2</sup>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단기방문(C3), 유학(D2), 고용허가제(E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5)비자 6가지이다. 이중 고려인 동포에게만 발급하는 비자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이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대부분이 이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

동포의 국내 취업 조건과 환경을 대폭 편리하게 만들었다. 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 가족 연계의 부족으로 입국대상에서 배제된 고려인 동포들이 국가공증 한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얻은 뒤, 연간 쿼터 내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취업 가능한 업종의 경우, 방문취업자격(H-2) 동포들은 내국인들이 취업을 피하는 38개 단순노무직 업종 중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림 2-3>** 카자흐스탄 고려인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자격 국내 거주자 현황

자료: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1,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II], 표 II-4, II-5, 한국에 돌아오는 중국과 CIS국가 동포들이 취업관리제의 적용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유익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국내 노동시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외국노동력으로 보였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허락한 체류 기한이 지나면 다시 본국에 돌아가야 하였다.

<표 2-3>방문취업(H-2) 자격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고려인 국내거주자 현황

국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러시아	1861	2094	2041	1932	1031	564	332
카자흐스탄	214	351	452	465	584	702	1054
우즈베키스탄	2820	3911	5958	7610	8951	10223	12386
키르기스스탄	70	98	157	168	242	361	551
타지키스탄	12	16	17	19	40	52	67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및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1,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II], 표 II-5 토대로 재구성

2008년부터 한국 법무부는 동포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과 CIS국가 동포들 중에 대학교 졸업자와 고상공인 등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무활동과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0년부터는 기존의 1차 산업과 제조업 등의 분야에 장기

근속하거나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자격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전체 고려인 중, F-4비자 소지자는 6%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6%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4> 재외동포 (F-4) 자격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고려인 국내거주자 현황

국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러시아	57	104	556	1203	2737	3948	4650
카자흐스탄	16	18	191	482	704	773	782
우즈베키스탄	42	68	400	1458	2881	3814	4631
키르기스스탄	1	4	14	45	111	146	188
타지키스탄	0	0	3	6	8	9	11
투르크메니스탄	0	0	2	2	2	2	2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및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1,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II], 표 II-4 토대로 재구성

재외동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자(F-5) 자격을 받을 기회를 준다. 정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일정 사항이 없을 경우<sup>3</sup> F-4자격 동포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sup>3</sup>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업종이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용하였다.<sup>4</sup>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자격(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저임금과 3D 직종에 종사한다. 고려인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보다 소규모이고 조직화 되지 못하며, 한국말을 구사하지 않는다 (김경학, 2014:144). 방문취업자격 동포인 경우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3년 이후 강제 출국해야 한다. 방문취업자격 고려인들은 재 입국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재외동포자격(F4)이나 영주권(F5) 발급을 원하지만 언어, 자산, 수입 등의 장벽으로 현실적으로 절차가 어렵다. 또한 19에서 25세까지 젊은이들에겐 방문취업자격 발급이 안 된다. 고려인들은 열악한 거주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언어 및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김경학, 2014:145).

한국 동포포용정책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과 구분되지 않고 같이 고려되며 통계적 자료도 주로 중국 동포에 집중하며, 고려인을 중심으로 하는 통계적 분석이 시급하다. 합법적으로는 고려인동포법이 2010년 5월 20일에 제정되었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

<sup>4</sup>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시행 2015.2.1.] [법무부고시 제 2015-29호, 2015.1.26., 폐지제정]

특별법”으로 정의하였다. 동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고려인동포들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의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의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 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지만,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오정은, 2015). 즉, 법적으로는 국내거주 고려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가의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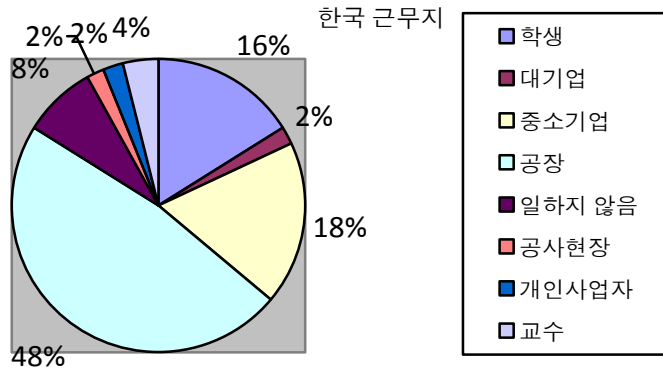
## 제 3 장: 주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 통합: 설문 조사 결과와 그 특징

### 2-1 조사대상자 소개

연구의 설문에는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5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 중에 여성이 25명(50.00%), 남성이 25명(50.00%)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2세(여성 31세, 남성 33세)였으며, 한국 거주 평균 기간은 3년 1개월 이었다. 응답자의 72.00%(학사 52.00%, 석사 20.00%)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지며, 28.00%는 낮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응답자의 체류 자격은 대부분이 F-4(재외동포): 22명(44.00%), H-2(방문취업): 20명(40.00%)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D-2(유학): 4명(8.00%), C-38(단기방문): 1명(2.00%), F-5: 1명(2.00%), F-6: 1명(2.00%), 한국 국적: 1명(2.00%)이었다(표 3-1). 응답자의 48%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18%는 - 중소기업, 16%는 - 학생, 8%는 - 대기업, 4%는 - 교사, 2%는 - 공사현장, 2%는 개인사업을 한다.(그림 3-1)

<표 3-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남자	25	50.00	
	여자	25	50.00	
	계	50	100	
나이	20대	19	38.00	Mean 31.88 Std.Dev. 6.81 Min 22 Max 50
	30대	25	50.00	
	40대	5	10.00	
	50대	1	2.00	
	계	50	100	
한국체류 기간	>1년	19	38.00	평균 3년1개월 Std.Dev 52.00 Min 1(개월) Max 240(개월)
	1-3년	14	28.00	
	3-6년	10	20.00	
	6-10년	3	6.00	
	>10년	4	8.00	
	계	50	100	
체류 자격	C-38	1	2.00	
	D-2	4	8.00	
	F-4	22	44.00	
	H-2	20	40.00	
	F-5	1	2.00	
	F-6	1	2.00	
	한국 국적	1	2.00	
	계	50	1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14	28.00	
	대학교(학사)	26	52.00	
	대학교(석사)	10	20.00	
	계	50	100	



<그림 3-1> 대상자들의 근무지 (%)

## 인식

<표 3-2>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 전/후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서신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응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다. 응답자 중에 이주 전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정적인 서신을 가진 응답자가 없었지만, 이주 후에 1 명이 되었다.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수는 이주 전에 11 명(22.00%)이었으며, 이주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주 전/후에 카자흐스탄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려인의 수가 14 명(28.00%)에서 17 명(34.00%)으로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서신을 가진 응답자의 수는 이주 전에 25 명(50.00%)에서 이주 후에 21 명(42.00%)으로 감소하였다.

<표 3-2> 이주 전/후 카자흐스탄에 대한 서신

이주전/이주후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계
부정적	0	0	0	0	0
다소 부정적	1	7	2	1	11
다소 긍정적	0	2	10	2	14
긍정적	0	2	5	18	25
계	1	11	17	21	50
Fisher's P=0.000					exact

<표 3-3>은 한국 이주 전/후의 고려인들의 한국에 대한 서신을 표현한다. 표에 따르면 이주 전/후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신을 가진 응답자가 2 명(4.00%)이었다.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의 수가 이주 전 2 명(4.00%)에서 이주 후 5 명(10.00%)으로 증가하였다. 다소 긍정적인 서신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이주 전에 16 명(32.00%)에서 이주 후에 23 명(46.00%)으로 바뀌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30 명(60.00%)에서 20 명(40.00%)로 줄었다.

<표 3-3> 이주 전/후 한국에 대한 서신

이주 전/이주 후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계
부정적	0	2	0	0	2
다소 부정적	0	1	0	1	2
다소 긍정적	3	9	1	3	16
긍정적	2	11	1	16	30
계	5	23	2	20	50
Fisher's P=0.283					exact

## 정체성

<표 3-4>는 대상자의 정체성 범주화를 표현하고 있다.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인 동시에 자신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다” 라는 응답이 “사회 통합” 소유지를 의미한다. “저는 자신을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한다” 라는 응답이 “분리” 소유지를 의미한다. “저는 자신을 카자흐스탄 사람 또는 한국사람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저는 저 자신입니다” 라는 응답자의 선택은 응답자가 “소외” 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자신을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싶다” 라는 응답을 한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다 “동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15 명(30.00%)은 “사회통합” , 15 명(30.00%)은 “분리” , 17 명(34.00%)은 “소외” , 3 명(6.00%)은 “동화” 정체성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표 3-4> 이주 후 대상자들의 자기의식

문화변용의 네 가지 결과	빈도 (명)	비율 (%)
저는 이제 자신을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고 싶다 ( <b>동화</b> )	3	6.00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인 동시에 자신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다 ( <b>통합</b> )	15	30.00
저는 자신을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한다 ( <b>분리</b> )	15	30.00
저는 자신을 카자흐스탄사람 또는 한국사람으로 의식하지 않고, 저는 저입니다 ( <b>소외</b> )	17	34.00
계	50	100

다음, 설문 참여자들의 “매우 한국적”, “한국적”, “중립적”, “카자흐스탄적”, “매우 카자흐스탄적” 이라는 다섯 가지 문화적 정체성 범주를 정의하였다. 응답자 중 16 명(36.00%)은 “중립적”, 14 명(28.00%)은 “매우 카자흐스탄적”, 8 명(16.00%)은 “한국적”, 8 명(16.00%)은 “카자흐스탄적”, 1 명(4.00%)은 “매우 한국적” 이었다.

<표 3-5>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변용 결과의 교차 분석

범주/문화적 정체성	매우 한국적	한국적	중립적	카자흐적	매우 카자흐적	계
통합과 동화	2	3	8	3	2	18
분리와 소외	0	5	10	5	12	32
계	2	8	18	8	14	50
Fisher's exact						P=0.047

##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

<표 3-6>에서는 국내 단체 지원, 직장, 생활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4 단계 척도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해야 하였다. 지역의 사회적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29명(58.00%)은 “만족한다”, 13명(26.00%)은 “만족하지 않는다”, 5명(10.00%)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명(6.00%)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근무 조건에 대한 만족도인 경우, 44명(38명 - “만족한다” 및 6명 - “매우 만족한다”)은 근무 조건에 만족한다. 응답자의 84%(42명)는 전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하며, 나머지 16%(8명)는 만족하지 않는다. 마지막,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해 보면, 응답자의 다수 40명(80.00%)은 임금수준에 만족한 반면, 10명(20.00%)은 만족하지 않는다.

<표 3-6>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

변인/척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한다 3	매우 만족한다 4	계
지역단체의 지원	5(10.00%)	13(26.00%)	29(58.00%)	3(6.00%)	50(100%)
근무 조건	0(0%)	6(12.00%)	38(76.00%)	6(12.00%)	50(100%)
한국 생활	1(2.00%)	7(14.00%)	32(64.00%)	10(20.00%)	50(100%)
임금수준	0(0%)	10(20.00%)	40(80.00%)	0(0%)	50(100%)

### 사회적 관계와 선호 거주국가

<표 3-7>은 사회적 관계와 미래에 거주국가 선호성을 표현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고려인의 68.00%(34 명)는 CIS 국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머지 11 명(22.00%)은 한국사람, 5 명(10.00%)은 기타 외국인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인 경우, 응답자 중 18 명(36.00%)은 카자흐스탄, 18 명(36.00%)은 기타 나라 및 14 명(28.00%)은 한국에서 거주를 원한다.



<표 3-7> 교제와 거주지 선호성

국내에서 주로 교제하는 민족 그룹	CIS 국가사람 34(68.00%)	한국사람 11(22.00%)	기타외국인 5(10.00%)	총계 50(100%)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국가	카자흐스탄 18(36.00%)	한국 14(28.00%)	기타 나라 18(36.00%)	50(100%)

### 차별 경험

<표 3-8>은 대상자의 한국에서의 차별경험과 사회생활 참여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0.00%는 차별 경험이 없으며, 50.00%는 차별 경험이 있다. 당시, 28명(56.00%)은 사회생활(축제, 학교 행사, 봉사활동 등)에 참여 경험 없고, 17명(34.00%)은 몇 번 참여하였고, 5명(10.00%)은 많이 참여하였다.

<표 3-8> 차별 경험과 사회생활 참여 빈도

구분		빈도(명)	비율(%)
차별 경험	없었다	25	50.00
	있었다	25	50.00
계		29	100
사회 생활 참여	참여 안 했다	28	56.00
	많이 참여했다	5	10.00
	몇 번 참여했다	17	34.00
계		50	100

## 언어 능숙도

응답자의 한국어 능숙도를 고려해 보면(표 3-9),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7명(14.00%)만 한국어에 능숙하다. 나머지 21명(42%)은 매우 낮은, 11명(22%)은 낮은, 11명(22%)은 중급 수준이다.

<표 3-9> 한국어 능숙도(5 척도)

구분	매우 낮다 1	낮다 2	중급 3	높다 4	매우 높다 5	계
한국어 수준(말 하기)	21(42.0 0%)	11(22.0 0%)	11(22.0 0%)	4(8.0 0%)	3(6.0 0%)	50(10 0%)
한국어 수준(쓰 기)	25(50.0 0%)	11(22.0 0%)	7 (14.00% )	4(8.0 0%)	3(6.0 0%)	50(10 0%)
한국어 수준(읽 기)	20(40.0 0%)	9(18.00 %)	13(26.0 0%)	4(8.0 0%)	4(8.0 0%)	50(10 0%)

대상자의 다수가 카자흐말을 고려인말보다 더 잘 한다(표-3-10). 42명 중 8명(3명은 높은 수준, 5명은 매우 높은 수준)이 카자흐어를 고급 수준, 12명이 중급 수준으로 안다. 그 반면, 응답자의 50명 중 4명(2명은 높은 수준, 2명은 매우 높은 수준)만 고급 수준으로 알며, 7명이 중급 수준으로 안다.

<표 3-10> 카자흐어와 고려인말 능숙도

언어	매우 낮다 1	낮다 2	중급 3	높다 4	매우 높다 5	계
카자흐어	14(33.33%)	8(19.05%)	12(28.57%)	3(7.14%)	5(11.90%)	42(84%)
고려말	29(58.00%)	10(20.00%)	7(14.00%)	2(4.00%)	2(4.00%)	50(100%)

### 사회에 호감도 및 의견

응답자들은 5 단계의 척도로 카자흐스탄 사회와 한국 사회를 묘사해야 하였다(표 3-11).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20.00%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다” 와 20.00%는 “매우 따뜻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44.00%는 중립적 응답을 선택하였다. 7 명(14.00%)은 한국 사회가 “차갑다” , 1 명(2.00%)은 “매우 차갑다” 라고 응답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따뜻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응답자 중 32 명(18 명은 따뜻한, 14 명은 매우 따뜻한)이 따뜻한 의견을 갖고 있다. 10 명(20%)은 “중립적” , 5 명(10%)은 “차가운” , 3 명(6%)은 “매우 차가운” 의견을 갖고 있다.

<표 3-11> 카자흐스탄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 비교

사회/응답	매우 차갑다 1	차갑 다 2	중립적 이다 3	따뜻 하다 4	매우 따뜻하다 5	계
카자흐스탄 사회	3(6.00%)	5(10.00%)	10(20.00%)	18(36.00%)	14(28.00%)	50(100%)
한국 사회	1(2.00%)	7(14.00%)	22(44.00%)	10(20.00%)	10(20.00%)	50(100%)

<표 3-12>는 대상자들의 카자흐스탄과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한다. 대상자들은 카자흐스탄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해 비교적으로 동등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의 40.00%(20 명)는 “중립적”, 30.00%(15 명)는 “좋다”, 16.00%(8 명)는 “안 좋다”, 12.00%(6 명)는 “매우 좋다”, 2.00%(1 명)는 “매우 안 좋다” 카자흐스탄사회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는 40.00%(20 명)는 “좋다”, 40.00%(20 명)는 “중립적이다, 12.00%(6 명)는 “매우 좋다”, 6.00%(3 명)는 “안 좋다”, 2.00%(1 명)는 “매우 안 좋다” 같은 결과로 나왔다.

<표 3-12> 카자흐스탄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변인/응답	매우 안 좋다 1	안 좋다 2	중립적 이다 3	좋다 4	매우 좋다 5	계
카자흐스 탄사회	1(2.00%)	8(16.00%)	20(40.00%)	15(30.00%)	6(12.00%)	50(100%)
한국 사회	1(2.00%)	3(6.00%)	20(40.00%)	20(40.00%)	6(12.00%)	50(100%)

## 2-2 설문 조사 분석

### 2-2-1 사회 통합 지수 (Social Integration Index)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Appendix1 에서 14 개의 변인 상관행렬 (correlation matrix)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변인의 60%를 설명한 네 가지 유일한 성분을 탐색하였다(표 3-13).

<표 3-13> 탐색 요인 분석 결과

분석 방법: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성분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성분 1	3.94836	1.84978	0.282	0.282
성분 2	2.09858	0.802289	0.1499	0.4319
성분 3	1.29629	0.128989	0.0926	0.5245
성분 4	1.1673	0.205265	0.0834	0.6079

다음 <표 3-14>는 회전 요소 매트릭스(Rotated Components Matrix)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14> Rotated Component Matrix

분석 방법: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KMO = 0.70					
변인	성분 1: 한국생활 만족	성분 2: 사회적 적응	성분 3: 사회적 교제	성분 4: 문화적 통합	Unique ness
한국 문화 정체성	-0.0393	0.2831	0.247	<b>0.3007</b>	0.5841
지역기관의 지원만족도	0.1822	-0.1833	<b>0.3682</b>	-0.2898	0.5329
통합 정체성	0.1226	0.0147	0.13	<b>0.6698</b>	0.2437
근무조건만족도	<b>0.3144</b>	0.0668	0.0284	-0.0072	0.6256
한국생활만족도	<b>0.3852</b>	0.1827	<b>-0.3329</b>	0.1201	0.387
한국인 친구의 수	0.1338	<b>0.4193</b>	-0.0288	0.0643	0.4342
한국 사회와의 교제	-0.0981	0.237	<b>0.5118</b>	0.0998	0.4705
차별경험	-0.099	0.1028	<b>-0.6089</b>	-0.0224	0.352
한국체류기간	-0.0322	<b>0.5276</b>	-0.0685	-0.156	0.2893
도시 사회적 행사 참여 빈도	0.0944	0.2202	0.165	<b>-0.5633</b>	0.3128
한국어 말하기 수준	-0.0347	<b>0.507</b>	0.0362	-0.0153	0.3719
한국사람에 대한 의견	<b>0.4952</b>	-0.0263	-0.0327	-0.0673	0.2617
한국사람들의 신뢰도	<b>0.4582</b>	-0.1388	0.0835	0.0399	0.2977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b>0.4465</b>	0.0428	0.0026	0.0004	0.3261

다음, Maeda(2006)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성분의 점수와 해당된 변인 값을 곱부시킴으로 사회통합 지수(Social Integration Index)를 산출하였다 (Appendix 2). 사회통합 지수는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서 각 대상자에게 적용되었다(Appendix 3).

**<표 3-15>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지수 소계**

사회통합지수	N	Min	Max	Mean	Std.Dev
	50	5.27	15.44	9.725	2.3434

다음 <표 3-17>는 사회통합지수와 대상자들의 정체성의 교차 분석 결과를 표현한다. 사회통합 지수를 평균 값에 따라 두 가지로 (“높은 수준” 과 “낮은 수준” ) 세분화하였다. <표 3-17>에 따르면, 높은 통합지수를 가진 응답자의 다수가 통합과 동화 범주에 들어갔으며, 낮은 통합지수를 가진 응답자의 다수는 분리와 소외 범주로 들어갔다. 이렇듯,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 정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6> 사회통합수준과 ‘통합’ 정체성 범주의 교차 분석**

사회통합수준	자기 인식 정체성		계
	통합과 동화	분리와 소외	
높은 수준	13	9	22
낮은 수준	5	23	28
계	18	32	50
Fisher's exact (2-sided)			P=0.004

## 2-2-2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 27 개의 외부 요소를 4 가지 범주로 분류시켜서 사회통합지수와의 상관 분석을 하였다.

<표 3-17> 사회통합수준과 외부 요인의 교차 분석 결과

#	요소	변인	Fisher's (p-value) 2-sided
1	개인적 특성	성별	0.045*
2		교육수준	0.334
3		나이	0.233
4		한국에서의 직업	0.159
5		체류기간	0.019*
6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	0.001**
7		카자흐스탄에서의 거주지역	0.818
8		카자흐어 말하기 수준	0.061
9		한국어 말하기 수준	0.023*
10	사회경제 적 조건	직업	0.360
11		근무시간	0.375
12		근무조건 만족도	0.052
13		한국생활 만족도	0.086
14		입금 만족도	0.154
15		지역 기관/단체의 지원 만족도	0.230
16	사회적 관계	한국인 친구의 수	0.000**
17		국내에서 주로 교체하는 민족그룹	0.091
18		도시 사회행사 참여빈도	0.768
19		차별경험	1.000
20	인식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	0.439
21		자기인식 정체성	0.012*
22		한국사람들에 대한 의견	0.002**
23		카자흐스탄 사람들에 대한 의견	0.205
24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0.003**
25		카자흐스탄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0.189
26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0.000**
27		카자흐스탄사회에 대한 호감도	0.169
			p<0.05*, P<0.01**



분석 결과(표 3-18), 성별(p=0.045), 체류기간(p=0.019), 한국어 말하기 수준(p=0.023), 한국에 이주한 이유(p=0.022), 자기인식 정체성(p=0.012), 0.05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p=0.003),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p=0.001), 한국인 친구의 수(p=0.000), 한국사람들에 대한 의견(p=0.002), 호감도(p=0.000)는 0.01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다.

### 개인적 특성

<표 3-18>는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의 사회통합수준의 상관 관계를 표현한다. 전체적 차원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낮은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남성들이 비교적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짧으며, 한국어 말하기 수준이 낮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18>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사회통합 지수	체류 기간								
	여성				남성				
	<3년	3-6년	6-10년	>10년	<3년	3-6년	6-10년	>10년	
높은 수준	5	5	3	2	5	1	0	1	
낮은 수준	7	2	0	1	16	2	0	0	
사회통합 지수	한국어 말하기 수준								
	여성			남성					
	낮다	보통	높다	낮다	보통	높다	낮다	보통	높다
높은	5	5	5	4	2	1			

수준						
낮은 수준	6	3	1	17	1	0
사회통합 지수	미래 거주 선호국가					
	여성			남성		
	카자흐스탄	한국	기타국가	카자흐스탄	한국	기타 국가
높은 수준	2	8	5	2	4	1
낮은 수준	2	2	6	12	0	6

### 사회적 관계

대상자 중에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한국인 친구가 적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국인 친구의 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통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인 친구가 많을 수록 대상자의 사회적 통합 수준이 높아진다.

<표 3-19> 한국사람들과의 교제와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사회통합 지수	한국인 친구의 수							
	여성				남성			
	없음	1-3명	4-6명	>7명	없음	1-3명	4-6명	>7명
높은 수준	0	6	5	4	2	2	0	3
낮은 수준	4	5	1	0	13	4	0	1
계	4	11	6	4	15	6	0	4

##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표 3-10>에 따르면 대상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의 정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이 좋으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가 높은 대상자들은 비교적 높은 사회통합 수준을 가지고 있다.

<표 3-20> 인식과 사회통합지수의 교차표

사회통합 지수	의견					
	여성			남성		
	차갑 다	중립적이 다	따뜻하 다	차갑 다	중립적이 다	따뜻하 다
높은 수준	0	5	10	0	3	4
낮은 수준	1	7	2	7	7	4
사회통 합 지수	신뢰성					
	여성			남성		
	신뢰 할 수 없다	중립적이 다	신뢰할 수 있다	신뢰 할 수 없다	중립적이 다	신뢰할 수 있다
높은 수준	0	9	6	1	2	4
낮은 수준	3	5	2	10	4	4
사회통 합 지수	호감도					
	여성			남성		
	안 좋다	중립적이다	좋다	안 좋다	중립적이다	좋다
높은	0	3	12	0	1	6

수준						
낮은 수준	1	5	4	3	11	4

요컨대, 예상과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상자들의 사회통합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높은 사회통합지수 범주로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높은 한국어 말하기 수준과 한국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미래에 한국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들이 한국 사회와의 교제와 한국인 친구의 수가 많으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 제4장: 인터뷰 결과를 통한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성 분석

### 4-1 사례를 통해 본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 주 전/후의 인생 경험

#### <사례 1> 안드레이, 26세

안드레이는 26세이며, 3년 전 국내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유학하러 왔다. 인터뷰를 안드레이가 현재에 사는 기숙사 라운지에서 진행하였다. 안드레이와는 인터뷰하기 전에도 오랜 친분이 있어서 그는 인터뷰 동안 여유로웠다.

#### *한국에 오기 전*

안드레이는 알마티주 탈디코르간시에서 태어난 4세대 고려인이다.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극동지역에서 탈디코르간시 근처에 위치한 달네보스토즈니 마을에 강제 이주 당하였다. 안드레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모스크바에 이사하여 6년 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머지 2년은 그 곳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였다.

###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안드레이는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는 여러 국가 대학교에 신청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초대를 받았으면, 그는 그 나라로 가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안드레이의 삶은 여유로운 편이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한국인 학우들과 어울려 보낸다. 그는 실험실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장학금과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낸다. 장학금의 대부분은 학비를 지불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학생 생활은 러시아에서의 학생 생활보다 쉽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 쪽(러시아)으로 왔으면 일도 했어야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장학금은 100\$ 밖에 안 돼서, 한국에서 주는 것 보다 훨씬 적다.»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안드레이는 자신이 한국사람도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의 생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자기 자신이 러시아 문화에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려인 문화는 특별하고 확실히 구분이 된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다른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고려인들의 전통은 고려인들의 문화에  
있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안드레이는 매우 높은 소외 수준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문화에서 자신을 분리하면서도 카자흐스탄과도 가까움을  
느끼지 못 한다고 한다.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만, 자기 자신이 단지 외국인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내가 다른 외국인들과 구별되는 것은 단지 F-  
4비자(재외동포 비자) 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고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

«나는 그들(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는 그 문화를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내  
자신이 그 문화에 속해 있지 않다.»

*미래에 대한 계획.*

안드레이는 한국문화가 자기문화로 느껴지지 못해서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직장을 얻기 위해 또는, 심지어 병원 증명서를 얻기 위해 아무한테도 돈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부정 부패)이 없어지지 않은 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작은 전망과 부패된 시스템 및 기타 사회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다.

#### **<사례 2> 빅토르, 41세**

빅토르는 1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다. 그는 37세 남자이며, 처음 봤을 때 외모는 한국인과 다르지 않았다. 빅토르하고 구 소련의 나라에서 온 이민자의 거주지로 유명한 동대문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빅토르는 질문에 집중하여 매우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배경.*

빅토르는 카자흐스탄 3세대 고려인이다. 할머니는 사할린에서, 할아버지는 극동지역에서 이주하였다. 그 분들은



다른 고려인들과 함께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에 위치한 까메쉬키노 마을로 강제이주 당하여, 그 곳에 정착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빅토르의 어머니와 형이 거주 중이다.

### *한국에서의 삶.*

맨 처음에 2000년에 인턴쉽 과정으로 한국에 왔었다. 그리고 4년 후 또 인턴쉽 과정으로 외국어대학교(용인)에 왔었다. 1년 후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에 대학원에 유학 와서, 졸업 후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빅토르는 한국사회에서의 높은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11년 동안 거주하면서 장점만 보았다. 그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도 해보고, 자기 사업도 해보고, 지금은 의료교육 분야에서 자기 동지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긍정적 사회관계와 높은 한국어 수준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친구가 많다. 빅토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이나 언어적 장벽을 느끼지 않는다.

### *정체성.*

빅토르는 다국적 정체성의 인상을 준다. 그는 높은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지만, 한국적 사고방식보다는 카자흐스탄의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한다.

«나는 한국인보다 카자흐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고려인. 한국인들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는 없다. 난 고려인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한국인들)의 사회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지는 못 한다. 나는 카자흐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다.»

직장에서나 여가 시간에도 빅토르는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다.

«내 생일 파티에는 모두(우리 고려인, 한국인, 카자흐인)가 모인다. 가족행사 덕분에 우리 고려인들끼리는 더 자주 모인다.»

*미래에 대한 계획.*

빅토르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거주할 계획이다. 문화와 사고방식의 뉘앙스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일하는 데 있어 그의 큰 장점이다. 또한, 빅토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일하는 데 있어 그는 방해받지 않는다. 앞으로 빅토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다.

### <사례 3> 니나, 47세

니나는 47세이며, 16년째 한국에서 거주 중이다. 우리는

니나가 이태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CIS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블리노와 바렌니키(러시아 전통 음식)를 대접하면서 매우 따뜻하게 마지하였다. 니나와의 인터뷰는 아이들이 저녁 식사 후 노는 동안 실시하였다.

### *배경.*

니나는 남카자흐스탄의 잠불(현재는 타라즈) 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대이다. 그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다른 고려인들과 같이 극동지역에서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 당하였다. 현재는 니나의 부모와 아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딸은 미국에서 거주한다.

### *한국에서의 생활.*

1998년에 니나는 친척들 보러 한국에 처음으로 왔다. 2000년에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녀의 한국으로의 두 번째 방문이었다. 그녀는 전주시에 한 의류공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에서 니나는 그녀의 미래의 남편(한국인)을 만나 2002년에 결혼하였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나라에 대하여 많이 들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한국에 대한 잡지가 있었고, 고려인 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단지도 배포했었다. 처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통신 및 인프라의 개발 상태였다.

«공원과 지하철, 쇼핑 장소 등 모든 곳이 깨끗하였다. 여러 가지 무료 콘서트와 축제,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무료 공원과 도서관이 인상적이었다.»

언어장벽은 니나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가 되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옛 고려인말을 쓰셨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에는 한자어와 영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니나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카자흐스탄의 졸업장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한국어 수준이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어야 된다.

«한국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 번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어도 얼마 가지 못 해 포기해왔다.»

*정체성*

니나는 자기 자신이 한국인보다 카자흐스탄인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집에서는 카자흐 문화대로 지낸다. 많은 친구와 이웃은 카자흐인이다. 집에서는 카자흐 요리를 한다. 나는 심지어 여기에서도 Beshbarmak(카자흐 전통 요리)를 요리한다. 나는 내 자신이 카자흐인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정체성에 불구하고, 니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다. 그녀의 가정에서는 고려인의 전통을 준수한다. 그녀의 남편이 막내이기 때문에 모든 명절은 니나가 책임진다. 한국인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매우 착하고, 항상 도와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 *미래에 대한 계획*

니나는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지 않는다. 그녀는 한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노후에 대한 매우 미약한 사회적 보장이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었다.»

니나의 단기적 계획은 다문화 가정 및 CIS국가에서의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구청에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어로 된 1000권의 책을 모으는 중이다.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알고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하다.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위해서도 같은 상담을 해주었으면 한다.»

#### <사례 4> 알렉세이, 41 세.

알렉세이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알렉세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그의 가족이 남카자흐스탄에 있는 쉘켄트 시로 이주하였다.

알렉세이의 조상들은 박해를 받고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양반들이었으며, 그 이후 20세기의 3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하였다. 알렉세이의 가족은 야채와 가축 농장을 하였으며, 알렉세이는 전문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살았다.

#### *이주한 이유.*

알렉세이는 1990년대에 중개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오산 시의 플라스틱 공장에 입사하였다. 90년대에는 CIS 국가에서 온 고려인들에게 취업비자가 제공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일을 하였다. 월급은 30만원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7개월 후 직장에서 서의 불친절 때문에 공장을 떠나 돼지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농장에서의 월급은 80만원이었다. 하지만 2002년에 그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추방당하였다. 2010년에 그가 H-2 비자로 한국에 돌아와서 양산 공장에서 4.5년 동안 근무하였다.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얼마 후에 새로운 비자 신청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비자 제공 조건이 바뀌어서 현재 한국에 돌아오지 못 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알렉세이는 긍정적으로만 한국을 평가하였다. 그는 특히 높은 애국심과 민족통합을 예로 들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  
것이 좋다. 뭔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당신이 한국말을  
하든 말든 간에 꼭 답변을 주고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언어적 문제와 사고방식의 차이는 동료 및 다른 한국사람들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벽이 되었다.

«내가 고려인이고 한국이 나의 역사적 모국이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 하고 외롭기 때문에 가끔 절망에  
빠져 울부 짖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

### *정체성*

통화하는 동안 알렉세이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그들»

의 분리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카자흐스탄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보여줬다.

«그들은 다르다.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카자흐스탄 고려인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히 비즈니스일 뿐이지,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카자흐스탄 시민인 것이 매우 기쁘다.»

#### 4-2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에 다섯 가지 고려인들의 이주 전/후 인생의 공통점들을 밝혔다.

##### *한국으로의 이주 전/후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

모든 인터뷰 참가자는 대한민국으로의 이주 전과 후에 한국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었다. 발전된 도시 인프라, 첨단 보안 시스템, 발달된 의료 기술, 다양한 공공시설 등의 편리함이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고향과 호스트 국가의 비교는 삶의 새로운 조건에 대한 이민자의 실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 명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에서의 법에 대한 순종과 질서를 예로 들며, 한국의 사법제도와 카자흐스탄의 부패된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호되는 매우 안전한 국가로 보인다.

### *언어적 문제*

대부분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았다. 언어는 이민자와 국민 간의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 소통의 가능성은 사회와 문화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측면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사회의 가치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사례 2의 경우 한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착오 또는 갈등이 생길 경우,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였다.

«한국어를 잘 하면 한국에서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학생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 *[사례1]*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못 하면 당신은 낮은 사람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힘들 것이다.»

### *[사례 2]*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한국말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배우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시간의 부족, 비용의 문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웠다.

#### *한국 이주 전/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했을 때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우리 고려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근면한 편이다.

그래서 존경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좋은 편이다.»

#### *[사례 3]*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려인들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100% 보호받는다.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모르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다.»

#### *[사례 2]*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상당히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다수민족과의 경쟁과 존재하는 법률의 가능성 한계 내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다. 카자흐스탄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고려인들의 30%는 경제 영역에서 종사하며 그 중에 높은 직위를 갖는 고려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Kim G., 2009). 재한 카자

호스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여, 카자흐스탄의 긍정적인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Tsuda(1998)에 따르면 긍정적인 소수 민족(positive minority)은 수치적으로 많지 않으며 우세한 세력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민과 동일하거나 일반적으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며, 그들의 문화 특성과 관련 많은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호스트 사회에 도착하면 이민자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소수민족이 된다. 그들이 직면하는 급격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환경,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새로운 소수민족의 상태, 빈번한 인종 편견과 차별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지지하는 민족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족 정체성을 재정 의하고, 결국 다수의 사회에 자신들을 통합시키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별개의 소수 민족으로 계속 지내게 된다(Tsuda, 1998:321).<sup>5</sup>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장과 현장에서 일하는 고려인 대상자 중에 60.00%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 중 80.00% 학사 학위, 20.00%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

<sup>5</sup> Tsuda(1998)에 따르면, 부정적인 소수민족들(negative minority)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문화적 및 민족적 차별을 받는다. 본 “낮은” 민족 지위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공장에서 현지 사회 구성원들이 피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결과이라고 주장한다.

있다. 즉,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사무직 종사자나 개인사업자로 일한 반면, 한국에 이주한 이후에 공장에서 종사함으로써 3D업무를 하게 된다.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호감도는 재미동포(55.0%), 재호주·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재일동포(29.8%), 재중동포(14.9%), 재 구소련국가동포(13.3%), 재동남아동포(13.5%)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국가 재외동포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재 카자흐스탄과 기타 CIS국가의 고려인들에 대해 비교적 제일 낮은 수준의 호감도를 갖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재외동포를 한국사람과 같은 한민족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한국사람들은 재CIS동포와 느끼는 민족동질성이 제일 낮은 순으로 나왔다(윤인진, 권일남, 김태균, 배진숙, 송영호, 2015).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한국에 이주한 뒤 그들의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현실적으로 부정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중산층 긍정적 소수 민족으로 보는 고려인들의 다수가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단순노무한 외국인력의 부정적 민족으로 바뀐다.

### *본국과 국내 동포들과의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접촉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고려인 대상자들은 이주 후에 동향 사람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편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8.00%는 CIS국가 동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sup>6</sup>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두 그룹 간에 서로 유리한 정보와 개념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주자들이 제도화된(공식) 지원의 존재 또는 접수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도화된 지원에 접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Berry, 1997). 인터뷰 참여자들은 고려인 문화 센터, 고용센터 등 지원에 대해서 몰랐다. 그 중 두 명은 이주자 네트워크(교회, 공장에서 일하는 동포 등)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다.

### *정체성 재 의식 문제*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

---

<sup>6</sup>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고려인에 비해 한국에서 아직 수적으로 많지 않으나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 거주를 선호하는 편이다. 출입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09월에 서울특별시 196명, 인천특별시 149명, 아산시 138명, 경주시 79명, 안산시 다원구 130명, 천안 58명, 김해시 51명, 광산 83명, 음성군 28명 등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고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2016년 9월 말 기준)).

성을 의식하였다. 참여자들이 3-4세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으로서 소련 시대에 태어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문화와 교육 영향을 받았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한국에서 벌써 없어진 전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소련에서 자랐었어요. 그 때 사회주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 안 하면 아무도 너한테 아무 소리를 안 낼 거예요.»

[사례 2]

이주한 후에도 고려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유일성을 의식하며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도 정체성 특성을 유지한다.

«고려인들은 한국보다 카자흐스탄에서 살기가 더 편해요.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동무 중에 이방인으로 느낀다. 한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인이에요.»

[사례 2]

설문 응답자들의 64.00%는 호스트 사회와 본국 사회 사이에 자신을 소외와 분리 범주로 할당하였다. 즉, 대부분은 두 국가에 동일한 애착을 느끼는 다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그들의 절반은 한국에 이주한 후에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포

기하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의 유일성을 의식하면서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포기하며 새로운 다 국가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다른 CIS국가 고려인들과의 정체성이 다르다. 사례 3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보다 러시아 고려인들의 사고 방식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1은 부모님은 문화 차이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자보다 카자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다 다르다. 이 것은 어떤 민족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례 3]*

## 제5장: 결론

경제발전에 있어 이주는 항상 근본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왔으며,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역 통합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 시장에 대한 기여 외에도, 이주의 미래 호스트 사회 인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현지의 사회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에 고려인 이주 형상의 증가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하며, 그들이 의식하는 정체성을 알아 내고자 하였다. 논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 사회통합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정체성,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세분화하며 이해하였다. 분석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지수가 이용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들의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임금수준, 근무 조건, 지역의 단체 지지에 대한 만족도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사회적 관계, 인식 및 언어 능숙도가 가장 유의하였다. 비교적 높은 통합수준을 보여 주는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며,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자신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다. 그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여 한국 사회와의 많은 교제를 가지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 및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국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대상자들을 네 가지 정체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카자흐스탄 사람이어도 자신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통합'의 범주, 자기를 카자흐스탄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분리'의 범주, 한국사람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닌 '소외'의 범주와, 더 이상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한국사람으로만 인식하는 '동화'의 범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36%는 '동화'와 '통합' 범주로 들어간 반면, 64%는 '소외'와 '분리'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렇듯, 고려인의 다수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에 부딪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주변화되어 있다.

국내 CIS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기존 연구(김재기, 2014; 김영술, 홍인화, 201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언어적 문제이다. 언어는 고려인들의 한국사회와 대화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배울 기본을 만든다.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편리한 통합을 위하여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언어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고려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국내 거주하는 CIS 국가 출신 고려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김재기, 2014; 김영술, 홍인화, 2013)와 다르게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귀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선호하며,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차별과 설움을 감내하는 디아스포라” (김재기, 2014:154)라는 의견에 반대하여, 본 논문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이 긍정적 소수민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는 3D 업종에서만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낮아지며, 3-4 세대 고려인들이 같은 한민족이어도 통합을 못 하고 있어 외국인력으로 보이는 부정적 민족집단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한국에서의 체류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지지하는 민족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김영술, 홍인화, 2013: 149)를 기반한 예상과 달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동향 모임에 번번히 참여하여 한국사람들과의 교제가 아직 넓지 않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두 그룹 간에 서로 유리한 정보와 개념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듯,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현지 주민과 고려인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요건을 만들어 상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전체 형상을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 과정이 호스트 사회와 이주자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이주자의 차원에서만 분석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이 없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구성원과 국내 동포들의 상황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IS 국가별 고려인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 출신 재한 고려인들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상에 대한 기존연구의 기여로 인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으며, 향후의 연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한국어

- 고광신·김형태. 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회사회사업, 15권 pp. 45-84.
- 곽재석. 2010. 「방문취업 동포 체류현황과 사회통합의 과제」, 다문화와 평화, 4권 제2호. pp.73-97.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국제지역연구, 17권 제4호. pp. 259-281.
- 김계르만. 1995, 「카자흐스탄 한인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 비교문화연구 제2호. pp. 201-251.
- 김 계르만. 2010, 「황영삼 해외한인사: 1945-2000」,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재기. 2014. 「광주광역시광산구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제32호 pp.139-163.
- 김을가. 2009.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문제 연구: 1990년대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김영술·홍인화. 201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제1호. pp. 131-161
- 김승력. 2015. 「국내체류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의 현황과 전망」 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6 pp. 1-6
- 오정은. 2016.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Ⅱ」, 2015 재외동포재단 보고서
- 윤인진·권일남·김태균·배진숙·송영호.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 -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제27권 통권 제63호 pp. 31-68.
- 이창주. 1998. 「유라시아의 고려사람들 = A History of Eurasia Korean」,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 임채완. 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39권 제2호 pp. 317-338.
- 이상근. 2010.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서울: 국학자료원.
- 심현용·김상철. 2007.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2007년 고려인 강제 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pp. 24-32.

전신욱. 2007. 「연해주 韓人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황」, 統一問題研究 2007년 상반기호, 통권 제47호. pp. 207-246

정병진·남빅토르. 2011. 「고려인의 이주와 정체성」, 관훈저널 제120호. pp. 228-260.

장원창. 2000.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한인사회 -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재외한인연구, 9권. pp. 189-236.

한발레리. 201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적응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 디아스포라 연구, 5권 제2호. Pp. 153-17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접근일: 2016-11-2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62#000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KIS Statistics, 2011

[https://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https://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

## 영어

- Berry, J. W., Trimble, J. E., Olmeda, E. L. 1986. “The assessment of acculturation.” *In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edited by W.J. Lonner & J.W. Berry, 291-324. SAGE Publications, Inc.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1):5-68
- Choi, Youngjin. 2015.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 s Capacity & Networks” . *Slav Newspaper* 30(3): 233-261.
- Diener A. 2006. “Homeland as social construct: Territorialization among Kazakhstan's Germans and Koreans” , *Nationalities Papers* 34(2): 201-235
- Kho, S. 1987. *Koreans in the Soviet Central Asia. Vol.61* Helsinki: Studia Orientalia
- Kim G. N. 2009.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thnic entrepreneurship of Koryo saram in Kazakhstan” , *International Area Review*, 12(1):127-162



- Krechel R.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edited by J. T. Marcus, 95-95. New Bur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Lee, J.Y. 2003. "Korea' s policy for Ethnic Koreans Overseas" . *Korea Focus*, Accessed on 2016/11/25  
[http://koreafocus.or.kr/design1/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411](http://koreafocus.or.kr/design1/layout/content_print.asp?group_id=411)
- Maeda H. 2006. "Elements and degrees of SI: A case study of Nikkei Brazilian immigrants in Japan."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5(3): 195-210
- Suinn R.M., Ahuna C.,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 Identity Acculturation" , *Psychosocial Measures for Asian Americans: Tools for Practice and Research*, Accessed on 2016/07/27  
[http://www.columbia.edu/cu/ssw/projects/pmap/docs/suinn\\_slasia.pdf](http://www.columbia.edu/cu/ssw/projects/pmap/docs/suinn_slasia.pdf)
- Tsuda T. 1998. "The Stigma of Ethnic Difference: The Structur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Japan's New Immigrant Minority" ,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4(2): 317-359
- Yem N., Epstein S.J. 2015. "Social Change and Marriage Patterns among Koryo Saram in Kazakhstan, 1937-1965" ,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8(2):133-152.

## 러시아어

Kan G. “Koreans in Kazakhsta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Koreitci Kazakhstana: Proshloye, Nastoyashye, Budushye*)”

Accessed on 2016/11/25

<http://www.ca-c.org/journal/rus-01-2002/17.kanprimru.shtml>

Natsuko Oka. “The Korean Diaspora in Nationalizing Kazakhstan:  
Strategies for Survival as and Ethnic Minority (*Koreitci v  
Sovremennom Kazakhstane: strategiya vyzhivaniya v roli  
etnicheskogo menshinstva*).” *Irkutskiy MION*, Accessed on  
2016/11/18

[http://mion.isu.ru/filearchive/mion\\_publications/russ-ost/](http://mion.isu.ru/filearchive/mion_publications/russ-ost/)

Simakova O. 2016. “What does the balance of migration in Kazakhstan  
tell about?” (*O chem govorit saldo migratsii v Kazakhstane?*),  
Central Asian Bureau for Analytical Reporting, Accessed on  
2016/11/24

[http://cabar.asia/ru/olga-simakova-o-chem-govorit-saldo-migratsii-  
v-kazahstane-2/](http://cabar.asia/ru/olga-simakova-o-chem-govorit-saldo-migratsii-v-kazahstane-2/)

Yem N.B. 2012.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and in the USA: some  
parallels issues (*Koreyskaya diaspora v Kazakhstane i v*

*Soedinennyh Shtatah Ameriki: nekotorye paralleli).*” KarGU

*Journal, History and Philosophy*, 3(67):13-20

# Appendix 1

## 상관 관계 행렬

변인	한국 문화 정체성	지역기관의 지원만족도	통합 정체성	근무조건 만족도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 친구의 수	한국 사회와의 교제	차별경험	체류기간	도시 사회적 행사 참여 빈도	한국어 말하기 수준	한국사람에 대한 의견	한국사람들의 신뢰도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한국 문화 정체성	1													
지역기관의 지원만족도	-0.0365	1												
통합 정체성	0.2312	0.0583	1											
근무조건만족도	0.1047	0.1091	0.0891	1										
한국생활만족도	0.1973	0.0578	0.1819	<b>0.3781*</b>	1									
한국인 친구의 수	0.2475	0.1554	0.2497	0.2681	0.3169*	1								
한국 사회와의 교제	0.1353	0.0903	0.1791	0.2957*	0.0581	0.2419	1							
차별경험	-0.2393	-0.2673	-0.2182	-0.2449	-0.0926	-0.0188	-0.2414	1						
체류기간	0.1576	-0.1175	-0.096	0.0997	0.2469	<b>0.4501*</b>	0.276	0.0163	1					
도시 사회적 행사 참여 빈도	0.1776	0.1517	-0.2672	0.1219	0.1134	<b>0.2908*</b>	0.1485	-0.1493	0.3683*	1				
한국어 말하기 수준	<b>0.3141*</b>	0.0176	-0.0036	0.1342	0.2248	<b>0.4715*</b>	0.2563	-0.0164	<b>0.5588*</b>	0.2509	1			
한국사람에 대한 의견	0.1519	<b>0.2982*</b>	0.2435	0.4396*	<b>0.3802*</b>	<b>0.3074*</b>	0.0652	<b>-0.2937*</b>	0.1311	0.224	0.1297	1		
한국사람들의 신뢰도	0.1183	<b>0.2925*</b>	0.2744	0.3667*	<b>0.3777*</b>	0.1523	0.149	<b>-0.3756*</b>	-0.0822	0.0844	0.0652	<b>0.6807*</b>	1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도	0.1594	0.2129	<b>0.3528*</b>	0.3827*	<b>0.4508*</b>	<b>0.3161*</b>	0.1731	<b>-0.3046*</b>	0.1554	0.3297*	0.1391	0.6345*	0.5638*	1

## Appendix 2

### 사회통합지수 등식

$0.3144*(\text{일조건만족도})+0.3852*(\text{한국생활만족도})+0.4952*(\text{한국사람들에 대한 의견})+ 0.4582*(\text{신뢰도}) + 0.4465*(\text{호감도}) +0.4193*(\text{한국친구의 수})+ 0.5276*(\text{한국체류기간}) + 0.507*(\text{한국어말하기 수준}) + 0.3682*(\text{지역의 지원만족도})-0.3329*(\text{한국생활만족도}) + 0.5118*(\text{한국사람과의 많은 교체}) -0.6089*(\text{차별경험}) + 0.3007*(\text{문화적 정체성}) + 0.6698*(\text{사회통합정체성})-0.5633*(\text{도시의 사회행사 참여 빈도})$
--

### Appendix 3

#	나이	교육수준	체류 기간(개월)	체류자격	사회통합지수
1	26	석사	24	F4	9.21
2	22	대학교(4년)	1	F4	9.14
3	22	대학교(4년)	24	D2	13.11
4	32	고등학교	43	H2	13.87
5	38	고등학교	19	H2	10.16
6	33	고등학교	18	H2	9.21
7	39	대학교(4년)	12	F4	7.15
8	36	고등학교	6	H2	9.8
9	29	석사	48	H2	7.67
10	38	석사	18	H2	8.62
11	28	대학교(4년)	1	F4	9.89
12	33	대학교(4년)	50	F4	7.88
13	23	대학교(4년)	12	F4	6.31
14	26	대학교(4년)	7	H2	10.67
15	34	대학교(4년)	8	H2	6.43
16	36	대학교(4년)	5	F4	8.83
17	25	대학교(4년)	3	F4	10.43
18	26	대학교(4년)	48	F4	13.69
19	28	대학교(4년)	1	F4	7.97
20	22	대학교(4년)	24	C-38	9.36
21	37	고등학교	6	H2	8.89
22	34	고등학교	24	H2	10.37
23	33	대학교(4년)	9	F4	8.12
24	35	대학교(4년)	2	F4	8.93
25	31	고등학교	1	H2	8.34
26	30	고등학교	12	H2	10.76
27	37	석사	132	H2	14.04
#	나이	교육수준	체류 기간(개월)	체류자격	사회통합지수

28	46	대학교(4년)	192	F6	12.43
29	25	고등학교	72	D2	9.94
30	24	대학교(4년)	13	D2	6.06
31	35	고등학교	44	H2	9.56
32	40	고등학교	2	H2	8.49
33	26	석사	2	F4	13.2
34	29	대학교(4년)	60	F4	11.42
35	23	대학교(4년)	5	F4	8.51
36	32	고등학교	10	H2	7.09
37	31	석사	58	F4	12.48
38	32	대학교(4년)	60	F4	9.52
39	41	석사	60	F4	11.85
40	32	대학교(4년)	6	F4	5.45
41	34	고등학교	88	H2	11.31
42	48	대학교(4년)	240	한국국적	15.44
43	22	석사	18	D2	8.47
44	39	석사	12	H2	12.15
45	26	대학교(4년)	7	H2	5.27
46	40	대학교(4년)	84	F5	11.49
47	30	대학교(4년)	14	F4	6.96
48	30	고등학교	8	H2	9.63
49	50	대학교(4년)	192	F4	8.9
50	26	석사	42	F4	11.78

## **Abstract**

# **Social integration of Koryuin im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Koryuin from Kazakhstan**

**Zhibek Bichuinova**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rocess and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Koryuin (Overseas Koreans) from Kazakhstan, who currently reside in Korea.

At an individual level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can be defined as an integration process in which an individual is incorporated into a new society. In a broad sense,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system integration, which is the process of successful incorporation into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moral integration,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level of mutual understanding, exchange, and identity (Kreckel, 1999). This work focuses on



the moral integration rather than system integration as a theoretical framework of analysis and understands social integration through two main dimensions: social relationship, and cultural identity (Maeda, 2006).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s cultural identity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host society, the resul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kinds strategies such as assimilation, integr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Berry, 1986, 1997). Assimilation is a process when immigrants want to become full members of the host society by giving up their original 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immigrants recognize their original culture and a new culture equally and become a true component of the local system. Sepa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migrants avoid communion with other groups or members of society to preserve their original cultural identity. Finally, marginalization means that immigrants refuse their original and new cultural identities by avoiding communion with members of a new society (Berry, 1997: 7-11).

The questionnaire with the participation of 50 Koryuin from Kazakhstan and fou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e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identity categories based on survey results. The category of 'integration' identifies those whose identity is Kazakhstani, but at the same time they want to feel themselves as full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 category of 'separation' identifies those who feel themselves only as Kazakhstani people and the category of

'marginalization' identifies those who are neither Korean nor Kazakhstani. And the last category of 'assimilation' includes people who fully recognize themselves as Koreans. Per the survey results, only 36%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domains while 64% were classified into 'alienation' and 'separation' domains. In other words, most of the Koryuin who migrate to South Korea from Kazakhstan cannot fully integrate into society as they face with various social,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was applied to defin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cioeconomic conditions, social relations, perceptions, and their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dicated that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with level of income, working conditions did not affect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Koryuin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social relations, social recognition,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ppear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Participants who show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tegration want to stay in Korea and want to feel themselves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while preserving their Kazakhstani identity. They are very good at Korean language and make a strong interaction with Korean society.

The main problem that Koryuins face during their settlement in Korea is the language barrier. Language serves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social norms and values through the continuous dialogue with the host society. An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convenient integration of Koryuins in Korea, and active consideration and interest of the immigrants is needed for its effectiveness

In addition, South Koreans still have a low sense of ethnic homogeneity and affinity with their compatriots from CIS countries. While many 3-4 generation Koryuins have a status of positive minority representatives in Kazakhstan, thei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tatus is lowered to a negative minority, as most of them work in the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industries.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y build a mutually supportive ethnic communities and social networks, but are not in close contact with members of host society.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ive policy to encourage mutual exchange by creating effective interactions between Koreans and their compatriots from Kazakhstan the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of the latter.

Due to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on this phenomenon this study had an exploratory character. Although the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the results provide a deep understanding about Koryuins' life in Korea and can be used in future studies.

**Keywords:** South Korea, Kazakhstan, Koryuin, social integration, identity, cultural identity

**Student number:** 2014-24378